

인기 짱짱 토크쇼, 미국시장 상륙 필수코스

미국을 대표하는 예능프로로 각광 코미디언 이름건 쇼 골든타임 강자 다양한 연령층 시청 영향력도 상당 제작진들도 '한류스타 모시기' 경쟁



그룹 에스파가 8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미국 코미디 센트럴 채널의 심야 TV 토크쇼 '더 데일리 쇼 위드 트레버 노아(The Daily Show with Trevor Noah)'에 출연했다. 이어 10일 폭스 채널의 '더 닉 캐논 쇼(The Nick Cannon Show)'에도 한국 가수 최초로 초청받았다. 9일 방탄소년단은 1000회를 맞은 제임스 코든의 CBS '더 레이트 쇼'에 등장했다. 그룹 트와이스도, NCT 127도... 미국의 인기 토크쇼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성과 명성을 과시했다.

● "한류스타를 모셔라"

2010년대 초반 그룹 소녀시대와 싸이가 미국 안방극장의 초대로 새로운 길에 나섰다. 1960년대 말, 가수 이난영과 작곡가 김해송의 두 딸 김숙자·애자와 조카 이민자의 김시스터즈가 당시 미국 최고 프로그램이었던 CBS '에드 설리반 쇼'에 22번이나 출연했지만, 먼 역사로만 남은 때였다. 하지만 케이(K)팝 스타들에게 미국 토크쇼는 이제 익숙한 무대가 됐다. 이틀뿐 아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

미국의 대표적인 TV 토크쇼가 한류스타들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주연 이정재(위 왼쪽)는 1일 미국 CBS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 출연했다. 그룹 트와이스도 올해 4월 NBC '켈리 클락슨 쇼'에 나섰다. (아래) 사진출처 | 아티스트컴퍼니 SNS·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임'의 주연 이정재는 1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스티븐 콜베어 쇼)'에 게스트로 나섰다. '오징어게임'의 또 다른 주연 박해수·정호연과는 11월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지미 팰런 쇼)'에 초대됐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지난해 '지미 팰런 쇼'에 출연했다.

● 높은 시청률의 전통...美시장 공략에 필수

토크쇼는 미국의 대표적 '예능' 프로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까지 인기를 누린 토크쇼가 이후 관찰·리얼버라이어티 예능프로그램에 밀려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오랜 세월 인기를 누려왔다. 한류 주역들이 출연해온 무대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코미디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는 "골든타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게스트의 새로운 매력이나 의외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진행"으로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아왔다. (성상민 문화평론가, 2021년 9월5일자 미디어오늘) 실제로 미국 매체 데드라인의 올해 6월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콜베어 쇼'는 2020-21 시즌 평균 295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 미국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미식축구리그(NFL) 팰리스 카우보이와 라스베이거 레이더스가 올해 추수감사절 시즌에 벌인 경기의 CBS 중계방송 시청자가 3780만여명(11월30일자 할리우드 리포터)이었던 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그만큼 현지 대중문화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토크쇼 출연이 현지 다수의 시청자와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류스타들에게 필수적인 '코스'가 된 이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유재석, 10년 연속 '올해의 예능방송인'



유재석

유재석이 10년 연속 '올해의 예능방송인'으로 뽑혔다. 한국갤럽이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올해 가장 활약한 예능방송인·코미디언'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한국갤럽은 9일 유재석이 56.9%의 지지를 얻어 2012년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올해 MBC '놀면 뭐하니?'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을 진행하며 활약했다. 강호동(15.0%), 박나래(9.0%), 신동엽(8.9%), 이수근(5.0%)이 순위를 이었다.

고두심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자로



고두심

배우 고두심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았다. 올해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활약한 고두심은 16일 오후 7시 서울 씨네큐브 평화문에서 열리는 '2021 여성영화인축제'에서 상을 품어 인는다. '여성영화인축제'는 (사)여성영화인모임이 1999년부터 매년 여성영화를 조명해온 무대이다. 매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성영화인에 시상해 왔다. 올해 연기상은 '세자매'의 문소리, 제작자상은 '좋은 빛, 좋은 공기'의 제작자 반달 김민경 대표, 감독상은 '휴가'의 이란희 감독, 각본상은 '갈매기' 김미주·최선의 삶' 이우정 감독이 수상한다. '최선의 삶'의 주연 방민아는 신인연기상에 뽑혔다. 홍보마케팅상은 '갈매기', '빛과 छा'의 필앤필에게 돌아갔다. 한편 올해 무대에서는 영화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활동도 결산한다.

배우 김소연 '슬림9' 기부 프로젝트 동참



김소연

배우 김소연이 언더웨어 브랜드와 기부 프로젝트를 펼친다. 언더웨어 브랜드 '슬림9'의 모델인 김소연은 고객들이 기부 응원을 할 때마다 100원씩 적립하는 금액과 베스트셀러 제품을 최대 54% 할인 판매한 수익금 일부로 미혼모자 시설에 기탁하는 프로젝트이다. 9일부터 17일까지 '슬림9'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기부금은 김소연이 '슬림9' 측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시설을 직접 찾아 전달하며 이들은 봉사활동에 나선다.

'오징어게임' 美영화연구소 TV부문 수상작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9일(한국시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미국영화연구소(AFI)의 TV프로그램 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FI는 매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와 TV프로그램 가운데 각 10편씩을 뽑아 최고 작품의 영예를 주었다. '오징어게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특별상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게임'은 최근 미국 고심 어워즈와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를 받았다. 또 올해 구글 검색량의 TV소 부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이더맨' 사흘만에 20만5553장 예매

15일 개봉작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다 예매치를 기록했다. 9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영화는 7일 예매를 시작해 9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만5553장의 예매량을 넘어섰다. 이전 최고치는 11월 개봉한 '이터널스'의 16만6758장이었다. 영화는 정체기 벗어난 스파이더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톰 홀랜드,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이 주연했다.

'토종 OTT' 반격이 시작됐다

티빙 '솔도녀'로 유료 가입자 늘어 웨이브 '청와대' 다운로드 일등공신 쿠팡플레이 '어느날' 공개후 예약진미·일·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 노력

'토종'의 반격이 시작됐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주자들의 거센 공세에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seezn(시즌) 등 한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개성 강한 '킬러 콘텐츠'로 맞서고 있다. 이용자 호평을 넘어 유료 가입자 증가 등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티빙은 10월 오리지널 시리즈 '솔도녀' 여자들(솔도녀)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각기 사연을 지닌 29살 세 여자가 술을 매개로 현실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찬사를 얻었다. 아찔한 수위를 넘나드는 찰진 대사 속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직장·세대 갈등 같은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며 두터운 공감을 얻었다.

● 킬러 콘텐츠로 승부한다

티빙 박종환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은

"10월22일 '솔도녀' 첫 회를 무료 공개한 뒤 2주차부터 유료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티빙 자료를 보면 '솔도녀'는 3주차 1034%, 4주차 3439%, 5주차 3585% 등 유료 가입자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 부장은 "유튜브로 공개된 짧은 영상의 조회수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최대 400만회가 넘는 영상이 공유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공개한 예능 콘텐츠 '환승연애'를 시작으로 유료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웨이브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로 유료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사격선수 출신으로 알맹결에 자리에 앉게 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치평론가 남편이 펼치는 이야기는 11월12일부터 선보여 하반기 웨이브 앱 다운로드 횟수를 상반기 대비 12%(NHN DATA, 2021년 하반기 엠트렌드 리포트) 늘리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쿠팡플레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인 차승원·김수현 주연 '어느날'을 11월27일 공개해 약진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8일 '어느날' 2회분을 선보인 11월28일 기준 신규 가입자가 전주 보다 171% 늘어났다고



티빙 '솔도녀'여자들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밝혔다. 이후 4회분이 나온 이날 4일까지 3주 동안 전주 대비 254~136~47%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SNL 코리아'도 쿠팡플레이 월 활성이용자(MAU·Monthly Activity User)를 9월과 10월 각각 전월 대비 29.4%, 10월 14.6% 늘리는 데 힘을 발휘했다.

● 대규모 투자하고 해외로 간다

사실 '토종' OTT들은 여전히 '강자' 넷플릭스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7일 나온 엠·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만 20세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 통계를 보면 11월 국내 넷플릭스 결제자는 507만명이었다. 최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는 11월 '토종' OTT의 MAU가 올해 초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는 웨이브 457만명, 티빙 396만명, 쿠팡플레이 268만명 등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1253만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OTT가 본격 론칭 1~2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이에 각 OTT는 대규모 투자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대해가고 있다. 티빙은 2023년 까지 4000억원, 웨이브는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쿠팡플레이도 올해 1000억원 규모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신생 플랫폼 seezn(시즌)은 9월 공개한 영화 '미드나잇 스릴러'를 비롯해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즌은 9일 오리지널 시리즈 '크라임 퍼즐'을 일본 후지TV 등 해외 방송채널 및 OTT 등 플랫폼을 통해 100여개국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기제 본부장은 "글로벌 시청자를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스타일라이프하고 차별화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글로벌 시청자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OTT는 해외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티빙의 경우 내년 일본과 대만에 안착하고, 2023년까지 미국과 유럽 등 시장 확대를 꾀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선균도 힘 못쓰는 '신생 OTT' 한계

애플TV+기대작 'Dr. 브레인' 화제 못끌고 아쉬운 마무리 유료가입자 확보 당면 과제

지난달 한국에 상륙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가 빠르게 유료 가입자를 늘릴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 달리 좀처럼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톱스타를 내세운 오리지널 콘텐츠도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최근 데이터 분석회사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디즈니+의 국내 출시 첫날인 11월 12일 일일 모바일 이용자수는 59만3066명이었다. 그러나 11월21일에는 39만9426명으로 줄어들었다. 열흘 사이 32.7%나 감소했다. 11월19일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을 내놓은 넷플릭스가 같은 기간 DAU를 꾸준히 늘려 21일 395만5517명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디즈니+는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로 유명한 마블스튜디오, '겨울왕국'과 '라



애플TV+ 'Dr. 브레인'

이온킹' 등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 등 작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부족하다. 예능 콘텐츠 '런닝 맨: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공개했지만,

9일 오후 현재 한국 9위(플러스 패트롤)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11월4일 문을 연 애플TV+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선균 주연의 오리지널 시리즈 'Dr. 브레인'을 내놨지만 주목받지 못한 채 10일 최종화로 마무리한다. 원작인 동명 웹툰의 인기, 영화 '밀정'과 '달콤한 인생' 등을 만든 김지운 감독의 첫 드라마 등 호기심 요인이 이용자 확대에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 르몽드 등 해외 매체들이 '스릴러·SF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호평한 것과도 다른 결과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